

“KTX 타고 북녘 고향 가는 행복한 꿈 매일 꾀니다”

황해도중앙도민회 오건웅 광주지구 도민회장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실행민 아픔 달래준 큰 선물 남북 철길 개통 기대...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되길 새터민들 “北가족 안전 보장돼 하루빨리 만났으면”

“명절 때면 기자 탄 귀향객의 모습이 가장 부러웠는데, 어쩌면 저도 생전에 KTX를 타고 황해도 고향땅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진 지 68년. 실향민 1세대인 오건웅(76·광주시 북구 중흥동) 황해도중앙도민회 광주지구 도민회장은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커피숍에서 만난 오씨는 지난 1951년 1·4 후퇴 때 떠난 고향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오씨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쟁 때

문에 고향을 떠난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준 큰 선물”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올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군축 문제 등 평소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남북의 과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하루였다”고 자평했다.

오씨는 특히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만큼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철길 개설을 통해 기차를 타고 고향땅을 밟아보는 그날이 기대된다”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8·15 이산가족·전적 상봉'에 앞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씨는 “현재 국내에서 이산가족을 담



오건웅 황해도중앙도민회 광주지구 도민회장이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67번째 가지 못한 고향 황해도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채널로 분산돼 있다”면서 “많은 실향민이 이 때문에 헛갈리고 절차도 복잡해 한 채널로 통합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또 “그동안 열린 이산가족 상봉은 소수인원만 혜택을 본 일회성 짧은 행사였다”면서 “단순한 이산가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가족들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들뜬 표정이 역력했다.

12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새터민 한라·백두동일연대 남양성(여·42)대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 예민한 사안이었던 탈북자와 실향민 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면서 “처음 듣고 깜짝 놀랐지만, 아마도 김위원장은 국외 유학 경험이 있어 고향과 떨어진 실향민과 새터민의 마음을 잘 알아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씨는 이어 “새터민은 살기 위해 여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왔지만 단 하루도 떠나온 고향과 가족을 잊은 적이 없다”면서 “8월 15일로 예상되는 이산가족 상봉 때는 실향민 1세대 외에 새터민도 포함되길 희망하지만, 북한에 있는 새터민 가족의 안전보장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새터민은 자신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남북 분위기가 좋을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합법적인 생활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남씨는 또 북한과 서울이 표준시를 맞춘 것에 대해서도 “‘시간 분단’에서 ‘시간 통일’ 때 북녘 가족과 소통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여러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생각이 더 절실하다. 통일의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어린이집 원생이 장난감 삼켜 숨겨

관리 소홀 원장 금고형 보육교사 2명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1살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난감을 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여·60)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징역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31)씨 등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로·세로 3.5~4cm 크기의 포도송이 장난감을 입 안에 넣고 삼킨 원생 C(사망 당시 1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해 아동이 속한 연령대 아이들이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했다”며 “이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조현민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광고업체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내일 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 강서경찰은 “지난 28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현민씨에게 5월 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조씨 측은 출석하겠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A광고업체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물을 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고업체 직원 등 참고인과 피해회로(CO)TV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전무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물을 뿌렸는지,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29일 광주 서구의 한 평양냉면집 앞에 평양냉면을 맛보기 위해 손님이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평양냉면 ‘열풍’

정상회담 특수에 광주 주말·휴일 고객 줄이어 전문점 매출 5배나 급증...해외인론도 큰 관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 화정동 무진옥도 평소보다 평양냉면이 10배 이상 팔렸다.

김정곤(43) 대표는 “요즘은 냉면을 자주 찾는 시기가 아니라서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요일 저녁부터 냉면을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었다. 하루평균 평소보다 10배 이상(200그릇)씩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언론들도 ‘평양냉면’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차가운 면 요리인 평양냉면을 ‘평화의 상징’”으로 부르며 그 유래와 제조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벤저민 하스 기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평양냉면을 소개하는 말을 듣자마자

평양냉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서울의 전문식당을 찾아가간 사연을 28일(현지시간) 가디언 웹사이트에 올렸다.

영국 BBC 방송도 트위터에 올라온 평양냉면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트윗 게시물, 평양냉면을 맛보기 위해 식당 바깥에서 길게 줄 서서 서민들의 장면을 보도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냉면 열풍을 만들 어냈다”고 전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27일 생방송 중 “냉면 외교(moodle diplomacy)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미국에서 요리사로 활동 중인 가수 출신 이지연씨를 CNN 스튜디오로 초청해 냉면을 직접 만들고, 영객들이 시식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만취 행패 “형이 검사”라더니...

상나팔 ○...만취한 40대 가 자신의 형이 ‘검사’라며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쳐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서행.

○...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나모(43)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15분경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을 혼자서 마신 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모(40) 경사에게 “우리 형이 광주지검 검사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오 경사의 턱을 잡고 밀쳐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나씨의 형은 검사가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에서 나씨는 “가정문제도 아내와 다툼 뒤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을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경찰조사결과 나씨의 형은 검사

○...만취한 40대 가 자신의 형이 ‘검사’라며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쳐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서행.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0258	1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1882, 101동 3층 303호 [부동산] 84.9608㎡	아파트	190,000,000	
2017타경 10784	1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길284, 103동 4층 407호 [철수아파트] 56.400㎡	아파트	93,000,000	
2017타경 11237	1	광양시 가마로345, 107동 3층 304호 [광영동,브라운스톤가마] 84.9099㎡	아파트	139,000,000	
2017타경 9104	1	순천시 남정동 187 204㎡	대	124,140,960	일괄매각,채외의 채외와 창고 등 28.8㎡
2017타경 54166	1	보성군 광덕면 도림길 33 63.9㎡ 부속건물	단독주택	17,136,000	일괄매각
2017타경 11152	1	여수시 병랑동 368, 104동 1층 101호 [단대] 대,대교리지발리] 199.8727㎡	대	450,000,000	
2017타경 9708	1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52-1 1068㎡	대	67,2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9760	1	여수시 여서동 145-1 5689㎡	대	545,178,000	일괄매각,목책2.4
2017타경 10616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신49-18 3818㎡ [조	대	104,151,222	공유자우선매수권
2017타경 10906	1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232-1 626㎡ [연교미	전	5,759,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10968	1	여수시 돌산읍 신수리 산63 11306㎡ [조	대	30,255,000	공유자우선매수권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1633	1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929-9 1015㎡	대	53,7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11695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2-2 8596㎡	대	125,328,400	일괄매각,목책6동
2017타경 11817	1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512-6 822㎡	대	2,46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11879	1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452 1884㎡	대	67,842,800	일괄매각
2017타경 54166	2	보성군 광덕면 도림길 152-6 1280㎡	대	25,335,000	일괄매각,농지취
2017타경 11695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6-2 210.7㎡	대	350,713,000	일괄매각
2017타경 10197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6-2 210.7㎡	대	350,713,000	일괄매각
2017타경 10845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6-4 212.2㎡	대	402,877,450	일괄매각,채외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11510	1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265 3008㎡	대	1,012,100,900	일괄매각,공장및
2017타경 9760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6-2 210.7㎡	대	350,713,000	일괄매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